

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4. 7.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목 차

1. FAO, 유엔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양식 지침 승인..... 3
2. 캐나다 정부, 자국의 블루 이코노미 번영을 위한 로드맵 발표..... 4
3. ISSF, 다랑어 자원량 지속가능성 평가..... 5
4. 일본, 태평양 도서국들과 정상회의 개최..... 6
5. 뉴질랜드의 태평양 도서국 지원..... 9

-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의 수산위원회(COFI)는 전 세계 양식업계를 위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양식업 가이드라인을 승인함.
 - FAO 수산위원회(COFI)는 양식업의 글로벌 모범 사례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양식 가이드라인(GSA)을 승인함.
 - NOAA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개발한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어업 및 양식 생산량이 2억 2320만 톤에 달하고, 양식업이 인간 소비용 수산물의 57%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는 보고서에 따라 로마에서 열린 COFI 제36차 회의에서 승인되었음.
 - GSA는 목표와 범위, 지속 가능한 양식업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, 이행 및 모니터링 전략의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GSA는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만들고, 빈곤과 기아를 완화하며, 정부가 지속 가능성, 문화적 감수성,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성공적인 양식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※ 출처: International Collective in Supprt of Fishworkers¹⁾

1)<https://www.icsf.net/newss/world-news-fao-endorses-new-aquaculture-guidelines-at-un-committee-on-fisheries-meeting/>(‘24년 07월 22일 검색)

- 캐나다 정부는 자국의 해양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된 조치를 설명하는 문서인 블루 이코노미 규제 로드맵을 발표.
 - 캐나다 정부는 건강, 안전, 보안, 환경 보호를 유지하면서 해양 산업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블루 이코노미 규제 로드맵을 발표함.
 - 100개 이상의 규제 현대화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며, 이는 레드 테이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.
 - 캐나다 해양수산부(DFO)와 재무부가 개발한 이 로드맵은 해양 재생 에너지, 환경 보호, 해양 공간 계획, 해양 자율 선박, 해양 기술,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.
 - 이 로드맵은 장벽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기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의 참여와 다양한 정부 부처와의 협력의 결과물임.

※ 출처: SeafoodSource²⁾

2)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environment-sustainability/canadian-government-publishes-roadmap-for-blue-economy> ('24년 07월 22일 검색)

- 최근 국제 수산물 지속가능 재단(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, ISSF)는 최근 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다랑어의 자원 상태를 평가하였음
 - “해양관리협의회(MSC) 기준과 관련한 세계 다랑어 자원의 지속 가능성 평가” 보고서*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주요 상업용 다랑어 자원 23개 어종 중 11개가 MSC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
 - * 해당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행되고 있음
 - 이 수치는 2023년 3월 7개 어종에서 증가한 것임
 - ISSF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: ①MSC의 기준에 따라 참치 어종이 초과 어획되지 않고 고갈된 자원량을 충분히 회복시키고 있는지 ②지역, 국가 및 국제 기준 및 법률을 존중하는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지 확인
 - 해양별 합격점을 받은 어종:
 - 대서양: 서대서양 가다랑어, 북대서양 날개다랑어, 남대서양 날개다랑어, 동대서양 참다랑어
 - 태평양*: 서태평양 황다랑어, 서태평양 눈다랑어, 서태평양 가다랑어, 동태평양 황다랑어, 동태평양 가다랑어
 - * 서태평양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경우 2023년 불합격 받음
 - 남부 해양: 참다랑어
 - 인도양: 가다랑어
 - 인도양의 과제
 - 인도양 황다랑어는 지속적으로 초과 어획되고 있으며,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어획을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음
 - 다양한 NGO들은 인도양참치위원회(IOTC)의 적절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음
 -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 황다랑어의 자원량 회복에 비관적이며 앞으로 두 세대 내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source : Seafoodsource³⁾

3)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environment-sustainability/issf-report-finds-more-tuna-stocks-are-avoiding-overfishing>

- 18개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이 목요일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태평양 지역 개발에 관한 일본의 강화된 역할을 지지하고 모든 종류의 위협적 활동에 반대를 천명하였음.
-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또는 PALM(Pacific Island Leaders Meeting)은 1997년 일본 주도로 시작되었고, 태평양 도서국 회원들과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및 경제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일본의 핵심적 외교 수단이 되어왔음. 일본은 태평양 도서국들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해 왔음.
- 공동성명에 따르면, 정상들은 기후변화, 해양안보 및 국방, 경제 개발 등 이슈들에서 일본이 보다 많은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에 합의하였음.
- 정상들은 기후변화를 “태평양 주민들의 생계, 안보 그리고 복지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”으로 규정하고,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저감 및 적응을 위한 협업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음.
- 공동성명에서 정상들은 평화와 안정의 “우위성”을 강조하였고, “국제법에 따른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”에 공감하였음.
- 정상들은 “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해 현재 상태를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한 반대”를 피력하고,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였음.
-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태평양 지도자들이 “법치주의, 민주주의 및 무력으로 현 상태를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반대와 같은 공통의 가치 및 원칙들을 공유”하였다고 밝혔음.
- 이번 회의 공동의장이었던 쿡 제도 총리 Mark Brown은 청색 태평양을 위한 2050년 전략 “평화, 조화, 안보, 관용 및 번영이 있는 지역을 위한 비전”을 달성하기 위해 PIF 회원들과 “대등한 입장”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일본의 접근을 환영하였음.

- 정상들은 기후 적응 및 재난 관리, 지속가능한 해양관리, 경제적 회복력, “사람 중심 개발 보장” 그리고 기술과 연결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7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또한 채택하였음.
- Brown 총리는 공동성명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, 지역에서는 기후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의 기여 제공을 환영하지만 일본이 “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확인해 줄 것”을 요청하였음.
-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일본과 동맹국인 미국, 호주, 뉴질랜드와 같은 지역 파트너들 내에서 안보 우려의 초점 지역이 되고 있음. 최근 연도들에서 중국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 내 많은 도서국들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증가를 도모해 왔음.
- 회의에 참석했던 호주 외무장관 Penny Wong은 기자들에게 “태평양은 우리의 안정과 안보에 너무나 중요”하고 호주는 PIF 회원국으로서 지역에 보다 더 관여하기를 희망함을 언급했음.
- 호주와 중국은 수년간 무역 이슈로 인해 경색된 관계가 되었지만 최근 관계가 다소 개선되었음.
- Wong 장관은 태평양 도서국들을 대변하여 말할 입장은 아님을 전제하면서도, 우려가 많은 국가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음을 시사했음. “지난 2년간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의 여러 공동성명과 선언들을 보면, 이 지역 지도자들이 경쟁의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”고 말했음.
- Wong 장관은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는 일본의 “존경스러운 방식”이 “외부 국가들이 이 지역과 협력하는 좋은 모델”이라고 경의를 표하였음.
- 그녀의 말은 뉴질랜드 외무장관 Winston Peters로부터도 공감되었음. Peters 장관은 금요일 동경에서 일본의 관여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지역 내 어려움들과 이 지역에 걸려 있는 많은 이익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였음.
- “우리 지역은 순진하지 않다”고 Peters 장관은 말했음. 그는 태평양 전역에 “무자비한 압력”이 가해지고 있고 “영향력과 간섭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음.

- Peters 장관은 중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도 특정하지 않았음. 그러나 그는 "서로의 노력을 중복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상호 경쟁하는 것"을 피하기 위한 태평양의 협력을 장려하였음.
- 일본은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, 역내 규칙 기반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지도자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였음.
- 정상회의와 별도로 가진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인프라, 어업 프로젝트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발표하였음.

출처: www.apnews.com⁴⁾

4) <https://apnews.com/article/japan-pacific-islands-china-leaders-096d8bbe7df978d03340426c8c9a5cd3> (7월 19일 기사)

- 뉴질랜드 외무장관 Winston Peters와 해양수산장관 Shane Jones는 뉴질랜드가 향후 4년간 지속가능한 태평양 어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거의 5천 만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을 발표하였음.
- “여러 계획들로 구성되는 이 지원은 태평양 도서국 파트너들이 지역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의 핵심에 있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업을 더욱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뉴질랜드의 의지를 보여준다.”고 Peters 장관은 말했음.
- “이는 또한 뉴질랜드 의회의 불법, 비규제, 비보고 어업 관련 질의에 대한 후속 조치들로서,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근절하기 위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.”
- Jones 장관은 Honiara에서 개최된 지역 각료회의에서 이 패키지를 발표하고, 태평양 국가들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.
- “어업은 태평양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, 일부 국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고,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이들의 성공을 지원해 왔음. 우리는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약속을 하고 있고, 이 펀딩 패키지가 우리 태평양 국가들의 다음 중요한 단계들을 지원할 것”이라고 Jones 장관은 말했음.
- “기후변화는 많은 태평양 국가들이 수입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참치 자원이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이동하게 할 것인데, 뉴질랜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협력을 촉진하고 있다.”
- “태평양 참치 자원의 혜택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역 차원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”고 Jones 장관은 덧붙였음.
- Peters 장관은 뉴질랜드가 4개 이행 파트너 모두들과의 장기적으로 협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 자랑스럽다고 말했음: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(FFA), 태평양 공동체 사무국(SPC),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(WCPFC), 뉴질랜드 기초산업부(MPI).

- 지속가능한 태평양 어업 포트폴리오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됨:
 - 국가 역량 지원 (1,945만불)
 - 지역 역량 및 조정 지원 (1,649만불)
 - MPI 주도 어업 훈련 프로그램 (715만불)
 -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를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 지원 (463만불)
 - 프로그램 지원 (95만불)
- Jones 장관은 이번 주 태평양 도서국 FFC 각료 회의 및 지역 어업 각료 회의를 참석 중임.

출처: www.beehive.govt.nz⁵⁾

⁵⁾https://www.beehive.govt.nz/release/nz-support-sustainable-pacific-fisheries?utm_source=miragenews&utm_medium=miragenews&utm_campaign=news (7월 23일 기사)